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農業保險制度 —朝鮮에도實施하라—

一

第七十三議會에 提案될 農業保險法案을 審議할 農業災害保險及 共濟制度調査會는 去月二十二日 第一回總會를 開催하고 農林局案을 參考案으로 審議에 드러갓다는데 그答申을 기달리여 農林省은 最後案을 決定하야 來議會에 提出하리라한다。農業經營에잇서 全般的으로 資本主義的 經營에까지 進步치못하고 半封建的零細耕作을 特徵으로하는 日本內地의 農村은 自然的災害까지 負擔케되여 二重的으로 蒙하는 損害는 實로重大한바가잇다。따러서如斯한社會的事情外에 頻繁히 發生하는自然的災害를 생각하면 이農業保險制度가 가지는 社會政策的意義는 極히 甚大한것이다。特히影制度는 아직까지先進國家에서도 創定되지못한것으로 米國에 農地保護法이잇스나 그性質이 다르고 農業에 가장主力을두는 나치스獨逸에도 如斯한制度가 업는만치 이制度는 列强에 比較하야 가장 先進的 進步的 制度라아니할수업다。

二

今般 發表된 要綱에依하면 保險目的은 農作物收穫과 小作料收得이오、保險對象은 當分間水稻、桑、麥類의三種이오、保險事故는 風雨水旱災、凍結及降雹災 一定한植物病等이오 保險金交付는 保險目的物인 農作物이 三割以上被害를 蒙하는境遇에限하야 그被害程度에應하야 支拂하고 保險金額은 定額으로 規定되고 保險主體는 農業保險組合인데 그聯合會를 通하야 政府가 再保險케되는故로 結局 一種의 國營保險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今般의要綱과 昭和六年에 發表된것을 比較하여보면 (一)保險對象에 麥을 加한것 (二)被保險者를 個人單位로 하지안코 團體單位로한것 (三)保險金額을 定額制로한外 自小作人에 對한 事務를 國庫補助로한것等이 相異한點이나 가장顯著한點은(四)損害補塡에際하야 地主小作人間의 權利義務關係를 明示한點이다。

四

그런데詳細히 該要綱을 追究하면 保險金의定額 農作物被害三割以上의規定等도 問題가 될터이나、그中에도 半封建的零細小作制度 따러서法外의 高率인 小作料、低位의 生産力을 特徵으로하는 日本內地農村社會의 特殊한 社會事情을 考慮한다면 여러가지 困難한 問題가 이러날것이다。이것은 除外하고 다만保險金交付에關하야 地主小作關係를 觀察하면 地主가 損害의 補塡을 바들境遇에는 그額에 相當한部分의 小作料支拂을 請求할수업다고한것은 當然하나 小作人이 補塡을 바들境遇에는 補塡된部分以外의 小作料請求에 對하야서는 地主小作間의 權利義務에 影響이업다하엿스므로 形式上으로는 小作料는 完全히補塡케된다。그런데 凶作으로 小作料減免을 바들境遇에 只今까지는 地主小作間의 勢力關係로 左右되든것이 保險制度에依하야 事實上不可能히 되는 小作料納入、或한繁耕된 貸償을 一層强要케하는 傾向을發生케하야 小作人에 不利를 招來케하는 反動的役割을 하게할 境遇도 發生할것임으로 本法案과 並行하야 小作料減免規定을 創設하여야 完璧을期할수잇다。

四

一步前進하야 損害補塡에關한 地主小作人關係를 一層完璧케할려면 上述한바와가티 農地法制定이 必須條件으로 되는것을再言할 必要도업다。그런데그農地法의 臨時的緊急立法으로 來議會에提出될 農地調整法草案을보면(一)事變下의 農業生産 維持增進과 (二)農地에關한 紛爭防止를 主眼으로 하는만치 小作關係에잇서 無登記小作의 第三者對抗權、善良한 小作人保護、不在地主의 耕地兼倂防止等은 規定하엿스나 地主對小作人間의 紛爭과 乳轢의 第一根源이되는 小作契約解除猶豫期間、收穫檢收、作離料、永作權에關한 規定、小作料의 限界、小作料의 減免等을 全然 觸하지안코 다만 農地調整法案그自體의 紛爭防止와 小作人間의 法律關係에 關한 地主對小作人間의 裁判所 小作官의 權限을 擴大하야 地主對小作人紛爭을 强制的權力行使에 依하야 農地調整法案은 反動的役割을 하게될可能性이 多分히잇다는것을 指摘하는 同時에 이點을 議會에서 研究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五

이와가티 農業保險法案은 日本內地에서는 第五十三議會에 提出케되엿는데 朝鮮에서는 아직如斯한案은 考慮하지안는 模樣이다。그理由는 天災가 너무나 頻繁하고 그規模에잇서 廣汎함으로 到底히 如斯한制度를 制定할수업다고하는데 吾人으로하여금 말하라면 오히려 每年一億圓에가까운 巨額의 災害와 더불어 가까운生命을 빼앗기고잇는만치 朝鮮에서는 一層 이制度創定을 渴望하지안흘수업다。特히 東洋社會에잇서 數千年間 歷史發展過程에서 歷代統治者가 얼마나 水災、旱災等天災에對한 鬪爭을 經驗하게 되엿든가를 생각할때 朝鮮農村社會의 半封建的 零細耕作의 特殊事情을 除外하고라도 每年 年中行事처럼 거듭되는天災에 對하야 이制度의가지는 社會的意義는 極히大한것인바 當局은 모름직이 이點을 諒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影制度創定에 着手하기를 바라는바이다。

第二·第三段長期戰敢行!

支那에反省이업는限 南京陷落後도聖戰繼續

昨今의平和策動은局面糊塗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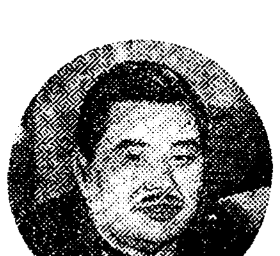
四相會議 根本對處策決定

杉山陸相

米內海相

【東京電話同盟】南京陷落이 刻刻으로 切迫하는 同時에 攻略後에 處할 帝國의 根本的態度를 確固不動케하며 東洋平和確保의 方針을 貫徹하기 爲하야 大方針을 確立함이 緊急한 要務가되엿스므로 九日午後三時부터 首相官邸에 廣田外相、杉山陸相、米內海相、賀屋藏相의 關係四相이 參集하야 緊張裡에 各自의情報를 交換한 後 隔意업는 意見交換을한 結果 最近支那側은 進退가 全然窮地에 陷한 結果 諸外國을 介하야 各種和平의 策動을 試하고잇는 模樣이나 此等은 모두 緊迫한局面을 糊塗하야 一時的廻避를하려는것이오 眞正으로 東洋平和의 大義에透徹하야 帝國과 衷心으로 協力을하려는것으로는認定키難하다 그러므로 我方에서는 彼에게 反省의誠意가잇다는것을 認得하기까지는 和平의 策動과가튼것은 一切로 이를 默殺하고 帝國은 既定方針의 貫徹을 期할바께업다 따라서 支那側의 妄動이 根絕되지안는 限 南京攻略後에라도 聖戰의 鉾를거두지안코 다시 第二、第三段의 長期戰을敢行할것이라고하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그리고 廣田外相、賀屋藏相은 外交財政의 兩方面으로부터 이 方針遂行에 何等의 杞憂할것이업다고 確言하야 이 積極方針을 支持하야 事實上으로 南京陷落後에 處할帝國의 不退轉의 態度는 이에 確立된셈인데 九日의 閣議席上에서 다시 同問題를 附議하게되엿스나 異議업시 政府의方針으로 確定되리라 豫想된다

廣田外相


賀屋藏相

御前會議奏請코 對支根本方針決定說擡頭

【東京電話同盟】南京陷落은 마침내 時間問題로 되야 여저 蔣介石政權의 沒落에 依하야 全國的敗戰의 事實은 掩蔽할수업게되여 그 責을 負하고 蔣介石의 下野까지 必至로 보게되엿다 支那에 直接利害關係를 가진 列國의 動向도 注目할 價値가잇다 一方抗日政權의 넘우나 悲慘한 敗退에 依하야 從來의 迷夢으로부터 覺醒된 北支及 中支民衆間에는 繼續自治政權誕生을 樂望하야 어데까지던지 東亞安定 民族共存共榮의 大局的見地에서서 百年大計를樹立하려하고잇는데 我國으로서도南京陷落後의 新事態에 對處하야 戰果의 徹底的達成을 期하야서 聖戰의意義를 明瞭케하기 爲하야 그善後處置와 今後對支根本方策에關하야 重大決意를 鞏固히할必要가잇스므로 此際 御前會議를 奏請하자는議가 旣然政府及關係方面에 有力히擡頭하여온것은 자못注目된다

蔣下野說否定 國府依然强硬態度

【香港九日發同盟】當地外人方面의觀測에依하면 南京陷落에伴하야 支那全局의大變轉을 機會로 蔣介石의 下野說及 長期抵抗說이잇스나 九日漢口外交當局談으로 蔣은 陸海空軍總司令 軍事委員長을辭任할意思는업다고下野說을 極力否認하고잇다 또外交當局은 八日夜 記者團과의會談에서 蔣은 現在日支事變解決은 日本이 支那領土로부터 撤退치안흐면 如何한第三國의 調停이잇드래도 交涉은 不可能하며 第三國의介入을 拒絕하고 支那와의 直接談判을 行하려하나 支那로서는 他國의援助가 잇고업고에不拘하고 交戰을 繼續할決意라는 表面强硬한態度를 갓고잇다

五時間의激戰

【東善鎭九日發同盟】岡本(保)部隊는 九日早曉來로 敵이堅壘를 자랑하는 牛首山堡壘의 攻擊을 開始하야 午前八時에이르러 濱田部隊는 벌서牛首山南方의 水閣村을占領하엿다 이에 協力한 藤村砲兵部隊는 一齊히 砲列을 펴고 山腹陣으로부터 射出하는 敵砲兵隊와의 間에 最初의砲兵의 白兵戰을 演出하야 大砲戰이 展開되엿서는데 交戰約五時間後에 勝敗가 決定되야 我의正確한 射擊은 敵의要塞砲를 完全히 制壓하야 沈默케하고 步兵部隊는 突進하야 이를占據하엿다

夕刊後市況 九日

◆朝取短期◆

銘柄	後引	高値	低値
朝取	三四·九	三五·二	三四·五
同新	二四·九	二五·一	二二·五
鐘新	一〇四·四	一〇六·〇	一〇四·〇
大新	一七七·九	一八〇·〇	一七六·九
東新	八七·三	八七·四	八六·五
日產	—	六六·〇	六六·〇
同新	—	—	—
拓新	—	—	四四·〇
朝石	—	三三·八	三三·〇
製練	—	—	—
帝人新	—	—	—

◆東京短期◆

銘柄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七七·五	一八〇·五	一七五·六
大新	一〇三·三	一〇六·六	一〇三·〇
鐘新	二六九·六	二九四·六	二八九·六
日產	八五·九	八七·四	八五·九

◆大阪短期◆

銘柄	後引	高値	低値
大新	一〇五·六	一〇六·〇	一〇三·三
鐘新	二九三·九	二九四·八	二九一·五

◆大阪長期◆

銘柄	前引	銘柄	後引
日產	八六·八	同新	八五·七
東新	一八〇·五		一七六·二
日鐵	一二〇·〇		一四·三
帝人	一四一·四		一四〇·二
日曹	九一·五		九一·一
日產	六六·六		六六·〇
鋼管	一〇四·七		一〇四·〇
日窒	八四·二		八四·〇
東株	二九〇·一	同新	一七九·八
鐘紡	一〇三·三	同新	二九三·六
大株	一〇五·〇	同新	一〇五·六
日糖		日產	八七·九
郵船	八八·二	同新	五七·七

◆各地期米◆ 木浦 當限 — 中限 三三·〇五 先限 三三·九五

◆大阪棉花◆ 當限 六一七五 先限 五三二〇

◆橫濱生糸◆ 當限六九六〇〇 先限六九二〇〇

◆福井人絹◆ 當限 六九〇〇 先限 七二三〇

蕪湖遂陷落!

三部隊의九日夕闇總攻擊結果

【宣城에서九日井關同盟特派員發】片岡、小堺、藤田各部隊는九日午後에決河之勢로 蕪湖에迫到하야 午後五時를期하야 總攻擊에옴겨 蕪湖城內에突入하야 夕闇에싸인城壁에威激의日章旗를飜揭하엿다 繼續하야 午時六時에殘敵을 城內北端에서 掃蕩中이다

南京城內肉迫!

中山路附近火焰衝天

【東善鎭九日發同盟特派員發】九日朝에南京蕪湖國道의 板橋鎭을 奪取한岡本(鎭)部隊의 先鋒은 午後四時에 빨리도西善鎭에 達하야 南京城外二粁의地點에 肉迫하고 다시進擊中이다

【東湯水九日同盟特派員發】中山門을 前面에둔 助川、片岡各部隊는 中山路附近의 敵을 攻擊中인데 敵은 城門全部의 鐵門을 굿게닷고 高二十米에 達하는 堅固한 城壁의 銃眼에 火線을 펴고 必死의 防禦를試하고잇스나 中山路附近은 벌서火焰에 재워잇고 南京城은 全然 眼前에 노여全軍의 士氣는 軒昂하야 躍進을 繼續하고잇다

南京城內 無政府狀態!

【北京九日發同盟】八日南京으로부터 在北京某外國機關의 入電에依하면 南京은 六日의 蔣介石逃亡을 轉機로 大混亂에 陷하야 全然無政府狀態로 化하엿다 市內警備에 當하고잇는 支那兵은 六日夜부터 指揮官의 命令에 反抗하야 『몹』으로 化하고 各各掠奪을 開始하야 各處에 火災가 이러나고 慘狀은 形言할수업다 밤이되자 揚子江岸의 對岸에잇는 民衆은 日本空軍의 襲擊으로부터 解放되엿다고하는듯시 率先하야 『장크』그他의 小舟에뛰여들어 渡河하려하고 船夫는 船貸을二百弗에까지 올니는 現狀이오 無理한 銀을 내고란市民도 뒤에온 敗殘兵때문에 下船되고 所持하엿든貴重品을 略奪當하야 現世의地獄을 現出하엿다하며 七日兩夜에 迷亡한數는 兵士市民總計十萬으로 推測된다 揚子江은 日本海軍이온다는소리에戰戰兢兢하고잇다

楊村占據

【上海九日發同盟】上海軍九日午後零時半發表=宣城을 占領하고 敵을 西北方으로 猛追中인 片岡、野副、小堺、杉山、伊佐等等各部隊는 昨八日正午頃 楊村(蕪湖東南約四里)을 占領하고 蕪湖를向하야 肉迫中이다

期限附投降勸告

【上海九日發同盟】上海軍九日午後七時發表、松井最高指揮官은 今九日正午에 飛行機에依하야 南京防衛司令官에게對하야 投降勸告文을投下하고 十日正午까지에 回答하기를要求하엿다

勸告文

【上海九日發同盟】松井最高指揮官으로부터 九日正午에 南京防衛司令官唐生智에게 보낸投降勸告文은 다음과갓다

日軍百萬이 벌서 江南을席捲하엿다 南京城은 바야흐로 包圍裡에잇다 戰局의 大勢로 보면 今後의交戰은 다못百害가잇고 一利도 업다 생각컨대 江寧의 地는 中央의 舊都요 民國의 首都이다 明의孝陵과 中山陵等의 古蹟名勝이 蝟集하야 宛然히 東亞文化의 精髓인 觀이 잇다 日軍은 抵抗者에 對하야는 極히 峻烈하야 寬恕치안흐나 無辜한 民衆과 敵意가업는 中國軍隊에 對하야는 寬大로써 이를 犯하지안는다 東亞文化에 對하야는 어데 保護保存할熱意가잇다 그리고貴軍이 交戰을 繼續하려하면 南京은 形勢반드시戰禍를 免키어렵다 그리고 千載의文化는 灰燼에歸하고 十年의經營은 全然泡沫이 될러이다 따러서本司令官은 日本軍을代表하야 貴軍에게 勸告한다 即南京城을 和平裡에 開放하고 左記의處置를하라

大日本陸軍總司令官 松井石根

本勸告에對한 回答은 十二月十日正午에 中山路句容道上의 步哨線에서 受領할것이다 萬若 貴軍이 司令官을 代表하는 責任者를 派遣할때는 該所에서 本司令官代表者와의 間에 南京城接收에關한 必要한協定을 行할準備가잇다 萬若 該協定時間內에 何等의回答도 接할수업스면 日本軍은 不得已南京城攻略을 開始할러이다(寫眞은松井司令官)

三橋局長記者團招待

三橋警務局長은 十日午後六時 料亭花月本店에서 總督府出入記者團二十餘名을 招待하야 忘年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南昌空中戰

敵二十六機를擊墜

【上海九日發同盟】□□道部九日午後七時發表、海軍航空隊는 九日午後에 大林三原兩少尉指揮下에 멀리 江西省의 首都 南昌의敵의空軍根據地를 空襲하야 地上에 待機中인 敵의新銳爆擊機二十數機를 爆擊하야 大破하고 또 二十數機의 敵機와 壯烈한 空中戰을 交하야 그中廿六機를 擊墜하엿다

太平門敵陣地爆擊

【〇〇基地九日發同盟】柳原大尉가 引率한 海軍航空隊〇〇機는 九日正午에 白雲을 뚫코 南京上空에 飛去하야 紫金山으로부터 南京으로드러가는入口 太平門內에 機銃陣地를 뒤고잇는 敵을爆擊하고 또 脇坂、下枝部隊가 占領한 大校飛行場附近을 偵察하고 午後一時卅分에 歸還하엿다 또原隊長의機는 通濟門附近을 五十米의低空飛行으로 偵察하는中에 城壁門의敵으로부터 高角砲와 機銃의一齊射擊을바다 傳聲管과 東翰支柱에 敵機의銃彈을 바덧스나 悠悠히 〇〇基地에도라왓다

鞏縣飛行場爆擊

【上海九日發同盟】海軍航空隊는 前十一時發表=八佐少佐가 指揮하는 海軍航空隊는 昨八日午後河南省鞏縣을 空襲하야 同地飛行場爆擊을 決行하엿다 同飛行場은 我軍의 再三爆擊에 依하야 徹底的으로 消滅되엿다

麒麟門及大山占領

【上海九日發同盟】上海軍午後零時半發表=南京攻擊中인 各部隊는 敵의 抵抗을 排除하면서 次次 그包圍圈을 縮少하야 昨八日正午頃에는 大野、野田各部隊는 麒麟門(紫金山東方二里)을岡本、竹下等의 各部隊는 大山(南京南方約三里)을 占領하엿다

伊、聯盟脫退?

【羅馬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伊에紛爭以來로 聯盟과는 不協力方針을 堅持하야왓는데 聯盟이 依然히 에디오피아倂合不承認의 態度를 固執하고잇기때문에 日獨兩國의例에 따라 近近正式으로 聯盟脫退의 意向이잇다고 羅馬外交界에 傳하고잇다 右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言明을 避하고잇스나 하바스通信은 伊太利政府는 벌서日獨兩國政府와 協議를하고 今週中에脫退의 決意를 公表할模樣이라고 報道하고잇다

英大使外相과懇談

【東京電話同盟】크레기英大使는 九日午後五時十五分에 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對支問題에對하야 여러가지懇談을하엿다

人事·集會

▲宮田寅雄氏(北支派遣總督府事務官)九日午後二時三十二分京豫定이엇스나 事情에依하야 來十二三日頃으로 變更

一週間籠城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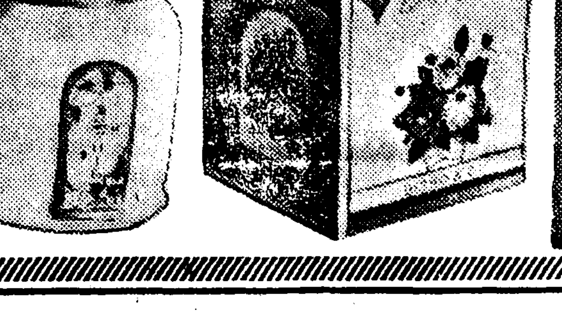
支那衛戍司令部發表

【上海九日發同盟】首都衛戍司令部에서는 九日 當局談을發表하야 支那軍 士氣益益旺盛하야南京籠城後에라도 一週間은 바뜰수 잇다고 豪語하고 目下逼迫된 情勢를 캄푸라주하고잇다

仁川支局電話開通 電二九〇番

風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 風病에걸리기만하면그병으로해서一生을마치게되는것이다 그러면風病은꼭不治病인가하면決코不然하다 何由오하면從來의治療는이것을固定시키는것에만注力하엿다 ... 回春藥院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內 癩病根絕策研究所 白 大邱支店 大邱府南龍岡町裁判所前 回春藥院



非常時의 大奉仕品! 美晶クリーム
高貴한 原料를 犧牲하야 時勢를無視하고파는것은 國民生活의安定을爲한微誠
高貴美肌素를加味配合한 ヘチマ精＝美晶クリーム
爽快한整肌料……鮮麗한明朗色
얼골에잡티와주름살을업새고 바를사록화색과生氣가强함
(全國化粧品店에잇습니다)
美晶クリーム本舖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大川盛進堂

本社大田支局 電八四九番

效力으로팔리는 胃腸病特效劑 即治水 (즉치수)

【効能】急慢性胃カタル。胃腸痛カタル。水アタリ。食アタリ。其他胃腸病ニ特效アリ
定價 一圓·二圓 三圓·四圓
全國有名藥房에有
京城府藥峴町 漢城藥舘本店

新築開業 (入院完備) (夜間應診) 全醫院 院長 全秉勳 京城鍾路三丁目一二五 電話光化門七五二 自宅光化門九五二

廣告
來ル昭和十三年元旦新年祝賀ノ爲左記ニ依リ新年互禮會ヲ開催シ時局柄一層嚴粛ニ施行シ且之ヲ以テ廻禮ヲ廢シ依テ本年ハ特ニ本催ヲ有意義ナラシムル樣致度候間御賛成ノ上多數御參加アランコトヲ
記
一、日時 昭和十三年一月一日午後零時三十分
一、會場 府民館中講堂
一、會費 金一圓五十錢
一、申込期限 十二月二十八日(土)午後四時
一、申込所 京城府庶務課秘書係又ハ同區山東部、永登浦各出張所
度御賛同の向は申込所に備付の用紙に所要の記入をなし御申込相成
昭和十二年十二月
戊寅元旦 京城新年互禮會發起人
佐伯顯
賀田直治

謹告 今般從來의使用하든共信商會商號를廢止하고商號를共和洋行으로改定하야 昭和十二年十二月一日부터 使用하게되엿사오니 四海諸彥은高諒하심을仰望함
昭和十二年十二月六日
朝鮮咸鏡北道會寧郡會寧邑私書函一九號
商 共和洋行
電話 一七七 工場部電話 三五八番
振替口座 京城一二三〇二番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八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〇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責任保證付 싱거ー中古재봉틀 (新品의約半價)

家庭用 十五種手廻 九十圓부터 十五種足踏 百〇五圓부터
職業用 十八種(製靴用) 百五十圓 二十九種(八方) 百八十圓 三十一種 百二十圓 四十一種 百三十圓 ...
市內二限リ月賦販賣
재봉틀賣買함 中古재봉틀高價買入
京城鍾路二丁目一七 楠商店 電話光三九六番

サービス景品付大賣出 一組合
大景品 壹等(高級御鏡台) 貳等(高級洋火鉢) 以下七等迄(景品券) 御買上金壹圓毎に補助券一枚 ...
大歲市 加盟各店 三木洋服店 石井小間物店 トミヤ帽子店 高森時計店 正視堂 丸信洋服店 平山理髮店 一心堂 マ支店 山口 丸武福鉾店 おきな菓子店 佐藤吳服店 夏川小間物店 森玉光堂 近江屋
本年最後を飾る加盟各店一齊、懸命ノ奉仕陣!!

二千年間風霜겪고 近代都市化한國都

情緖기픈秦淮의畵舫도昔日夢

이제는皇軍의馬蹄下에陷落도不日間!

춘삼월 따뜻한 봄바람불라고 어대에 다시 돌아오는 제비는 강남(江南)에서 온다고한다 강남! 그리운강남은 제비의 나라! 치운이따의 우리 보든 강남이 어데이지는 바로가르치 알지못하되 어슴푸시 희망을 부치어 꿈을 그리는곳이 역시 제비의 고향 강남이다 그런데 이 강남이 어디냐? 지금의지리로말하면 중국의 허리띄가튼 양자강(揚子江)、그 이남을가르처말하는것이니 지금바로 황군의 손아귀에들어서 그 함락이 목전에 달리엇다는 중국의수도 남경(南京)이 강남의 땅에서도 력사의도읍이요 그런가튼 명승의땅이다.

◇

열운은 강남이라고하나 바다가튼 양자강가에잇서 상하류의 교통은 편한곳으로 예로부터 도읍처되기에 부족이업는땅이고 기후는 언제나 따뜻하여 겨울이라고해도 얼마큼 어름도 얼기는하나 생생한 배채를 바테서뽑아다 먹을수잇슬만큼 마치 여기의첫겨울이나 일흔봄것다 그우에 겨울이란것도 잠간이어서 날이풀리는가하면 어느듯 푸른잔디가 밤사이에 문단이나 깔아노은듯이 포근포근하니 얼흡가오면 목련(木蓮)꼬치 백꼿(白蓮)의 머리가치 담을넘어보다 원래남국이란 꽃피배회가일홈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꽃을사랑하는 그땅에는 회원의 꽃보다 꽃상사의꽃이 거리를떠나는것이 더정편이다 어런때부터 강남의승경 막수호(莫愁湖)니 현무호(玄武湖)니 또진회(秦淮)니하는곳에는 꽉울지어것든 강남의미인이 또한 어엽분승경의점경이 되는것이다

◇

그러튼 아름다운강남의 남경도 팔월초순황군의 상해공격개시이후 무수한공폭(空爆)을 겨고이제는 전하는바 폐허(廢墟)가되고 남경의최후의 공격으로일경기의 회남을넘어 잇슬뿐이다 그리하야 력사의남경은 다시새로운페지를 기록케 된것이다 생각컨대 중국의력사가 전변무상한것과가치 남경도 이번때로 그전변무상함이 또한분명커이라할까! 사적을 들추면 남경의력사는 이천여년전 춘추시대(春秋時代)로부터 시작하야 그땅의 일홈이 변하기만도 오(吳)나라에 속하엿다가 초(楚)나라에 넘어가서는 금릉(金陵)이라고하고 진시황(秦始皇)때는 말릉(秣陵)이되고 삼국(三國)시대에는 오나라의건업(建業)으로 고처젓고 진(晉)나라때는 건강(建康)이라 금릉으로 그러고나서 송(宋)、원(元)나라때는 집경(集慶)이라하고 명(明)나라때는 응천부(應天府)로 그후청나라때 도읍을북경(北京)으로옴긴뒤에 남경이라 하야 이리하야 오늘의 남경이란일홈이 되엇고 근세에이르러서는 장발적(長髮賊)의 태평천국 홍수전(洪秀全)이 십수년간 수부로하엿고 그후근대혁명이 일어나매 손문(孫文)이 정부를 두어 민국정부가 민국십육년부터 장개석(蔣介石)의 손미래 현대중국의 수부가 된것이다

장개석이 광동(廣東)부터 북벌(北伐)을 개시하야 남북통일 정부로서 자리를잡으며 부터중국은 『천년중국』의 일홈미려근대구라파문명을 급격히 수입하야 『녀자도 남자도 머리를 깍거라』、『남녀칠세부동석은옛일이다……』 하고 강력적으로 금단의명을 수(下)하야 … 막수호(莫愁湖) (사진은 남경의 막수호=莫愁湖)

有職者窃盜團

열지기가전교사 용달사(用達社) 배달부 『끗도선』오원조수등 이상대청년들이 공모하고 절도단을 조직하야 가지고 서울의밤거리를 횡행하다가 특별고등계에 잡히엇다 … 충북(忠北)출생 장용춘(張容春) … 등은 두서오른하는 일당이 세명으로 … 지난일년동안 장곡천정(長谷川町)을 비롯 시내각처에서 절도를 하야 … 현재 취조중이다

鍾路署에서도 年末防犯講話

시내각서의 년말방범진(年末防犯陣)은 날로강화(强化)되여가고잇다 구일오전열한시 종로서에서는 관내전당업자오십오명을 동서강당에 모혀노코 장품(贓品)발견에관하야 경찰관측과 긴밀한연락을 취할것을 비롯 금년은특히 창신정(昌信町) 숭인정(崇仁町)에서 전당포를 습격한강도사건에비추어 전당포를 적어두는등 물건의 번호를 자서히조사하야 만일을경계하도록 약두시간동안이나 상세한방범강화(防犯講話)가잇섯다

密航者十五名을 出帆刹那에逮捕

釜山府外甘川海岸서

【釜山】지난칠일밤에 부외사하면감천리(府外沙下面甘川里)해안을 부산경찰서 형사가발견하고 수상한 청년들이 떠나는것을 부산해상에서 일치하야다가 엄중히 취조한결과 … 제주도 … 전남 … 등지에서 도항허가를 엇지못하고 밀항하려다가 잡힌것이라한다

貴金屬專門 窃盜의罪狀

수일전부터 동대문서에서 검거취조중이든 안양정(安養町)번지의삼호 리창덕(李昌德)(二五)은 지난칠월고향인 인천(仁川)으로부터 상경하야 십오일오후 한시경 본정(本町)삼정목 모 일본인집에 들어가 귀금속장신구등 여러가지를 훔쳐낸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일본인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전후 이십여건수천원의 귀금속을 절도한것이 판명되엿다

詐欺犯人逮捕

【釜山】동아의 편물(編物)부산출장소 … 잔교(棧橋)와 역대합소(驛待合所)등지로 렴개의소지한 현금귀중품과 기타의 소지품을 사취하야 온 적지아니한 일본인이 느끼게하엿는데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범인을체포코자 활동중이든바 지난칠일밤에 부산역대합실에서 …

新浦一帶의"恐怖" 少年强盜團送局

單十日間……(强盜犯行十二回)(假刑事질一回)!

【咸興】신포경찰서(新浦署)를 전률식히든 이인조가짜 형사강도단이 송국되엿다 그들 고병하(高炳夏)(二○)김동윤(金東潤)(一八)의 두소년은 사기강도절도 유실물횡령의 다섯가지죄명으로 청진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얏는데 그들은 신포부내에서 열흘동안에 열세건의 범행을 거듭하얏는데 그중강도가 십이건이나된다고하며 피해액도 오백십사원이나된다고한다

三寸집侵入强盜 三審에서棄却

자기삼촌집에 침입하야 백팔십오원을 강탈한혐의로 징역십년판결을받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한 황해도황주군주남면(黃州郡州南面) 리영희는 … 그의상고는 구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엿다

塵芥箱을團束

臨時屋外淸潔實施

김장쓰레기로너즐한

그동안 시내의김장순비로 거지반 뭇치나서 시내의거리마다 김장쓰레기가 싸혀잇는데다가 작금기온의 급강하로 말미아마 결빙이되여 그운반을 소제하기가 곤난함에비추어 경성부를 비롯하야 시내각서에서는 옥외청결을 독려중이거니와 시내 서대문서에서도 구일과 십일 이틀동안 림시옥외청결을 시행하게되엿다

지난시월일일부터 시행된 오물소제령에 의하야 가옥내의 소제는 물론이요 배수구(排水溝)의 개수와 청소며 변소와쓰레기통의유무 또는 그불안전한것을 조사하는동시에 이를설비식히고 특히 쓰레기통의 설치장소에 대하야는 다음의 정도에따라 정리하게 되엿다

一、전차길과 자동차길에 면한 건물의 쓰레기통은 길옆에는 절대로 못두게하고 집안에두게한다

二、구루마밧게 통행할수업는적은길에면한 건물의 쓰레기통은 될수잇는대로 집안에 두게한다 그러나 특별한사정이 잇는집은 …

血書로呼訴

從軍의不如意를

동경법정대학(法政大學)과법학생 김원길(金元吉)군으로부터 구일 남총독(南總督)에게 황군만세 무운장구(皇軍萬歲、武運長久)라고 혈서를 쓴 일장기와 소위제오원을 동봉한편지한장이왓는데 그편지내용인즉 황군의활약에 대하야 국민적경의를 표하는동시에 나도군적이 엇스므로 당연한 의무를 다할수업게되는것은 실로유감이다 여제공액의약소함도 불고하고 학비의 일부를떼어서 국방헌금으로 보내어 소회의진성을 다하는것이라는의미이다

스포ー츠欄

姜孃第四位 全日本卓球順位

일본탁구협회에서는 지난六日 芝區田村町東和ビル內事務所에서 理事會를열고 昭和十二年度 全日本式女子一般에 姜彰玉(同德出)孃이 第四位에 選定되엿다 日本式男子一般에는 … 第五位 … 第七位 …

牛津럭비ー雪辱

【倫敦八日發聯】年中行事인 劍橋牛津兩大學럭비ー對抗戰은 七日 皇帝조ー지六世陛下께서 御臨場하신가운데 倫敦郊外 트윅켄햄에서 擧行한바 十七對四로 昨年의 敗者牛津軍이 勝利하엿다

早大籠球十七日渡比

早稻田大學籠球部는 比律賓遠征을 決定하고 明春一月五日부터 열리는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를 앞두고 十七日神戶出帆의 熱田丸으로『마닐라』에 向할터이라 한다

獨逸體育長官訪日

올림픽東京大會에 獨逸은 多數의 勞働者와『히틀러·유ー겐트』를 派遣하야 올림픽東京大會와 其他會等의 準備、少年團、日本스포ー츠界의 現狀等을 視察할 目的으로 獨逸體育長官 찬머ー오스텐氏는 『히틀러·유ー겐트』團長 『쉬라하』氏를 同伴하고 明春四月에 日本을 訪問할터인데 올림픽組織委員會에 到着하엿다

朝鮮內에散在한 群小鑛山을合併

具體化하는"日鐵"의綜合開發計畫內容

三井三菱과提携新會社建設

일본제철소(日鐵)에서는 함경북도수성(輸城)평야에 대규모의 제철공장을 건설하는동시에 조선광산에 적극적진출을계획하고잇는것은 어미세상이 다아는바어니와 특히주목되는것은 삼릉(三菱)、삼정(三井)등 대재벌의소유한 각종광산을비롯하야 내선각지에 산재하야잇는 군소광산을 전부수중에너흐라고 공작하는 그것이다

일본제철소에서는 창립당시부터 현안으로 되어잇든 내선각지의광산을 전부 독점하랴고 하얏스나 그가격결정에 기술적으로 곤난한 점이 상당히 만흐므로 그동안 거의손을 떼다십히하고 잇든바 최근 조선의지하자원개발에 적극적주력하는기회를타서 다시진출하고자 지난가을이래 극비밀리에 삼정、삼릉양대재벌을 끼여넣어 따로 회사를창립하자는 의론이 엇게되엇다

그내용인즉 일본제철로서는 삼정、삼릉의소유한 내선각지의광산을 현물로 출자하도록한후 거기다가다시일본제철의 이뢰(二瀨)록정(鹿町)광업소와 군소철광기타를 본사로부터 떼어내어가지고 출자하야 따로한회사를 창립할터인데 창립후에는 다시내선각지에잇는 군소금광 철광탄광을 순차로합병하야 일본제철이 종합적개발 건설계획에 저장여업도록 도모하자는것이다

그런데 가장곤난시되고 엔든 광산의 평가라 파화적기술문제와 매장량에대한것은 동경제국대학(東大)계변삼(桂辨三)좌야수지조(佐野秀之助)량박사와 구주제국대학(九大)영적순차랑(永積純次郞)박사등 전문가에게 일임하야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하야 일본제철과 소유자간에서 선출되는 위원들이 엄정한평가를하야 그출자액을 결정할터이다 그리하야 삼정은 이미근본기술적 조사에 착수하얏고 삼릉은 겨우개발지역에 도달하랴는 무산(茂山)에 사업가적집착을노기고 평생일본제철(平生日鐵)사장과 삼릉(河手三菱)광업회사장의 절충에 의하야 원만히해결이될모양이다 어쨋든 조만간 실현되는 날에는 내선각지에 산재하야잇는 허다한 군소광산은 이번에 새로창립되는 광업회사에서 거의 다 점령하게 될모양이다

『新會社云云은 今始初聞』

鑛山課 金聖浩技師談

이에 대하야 총독부광산과기사 김성호(金聖浩)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일본제철이 조선광업에 적극적진출하랴는것은 사실이나 삼정 삼릉광대재벌의 소유광산을 종합하야 딴회사를 창립한다는 말은 처음듯는일이다 일본제철이 극비밀리에서 그런협의를 한다면 총독부로서는 아직알수업슬는지도 모르는것이다 그러나 삼정과 삼릉에서 여간유리한조건이아니면 지금까지 경영하야오든광산을 내노흐리가업다 하여간 상세(한것은 모른다)

朝鮮○○軍秘書科長 尹永配에無期役

外七名도全部體刑

新義州地方法院의判決言渡

【新義州】조선××군(朝鮮××軍)비서과장(秘書科長)윤영배(尹永配)외여덟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 강도강사건의 판결은 지난사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길전(吉川)재판장주심하에 열리어 최고무기로부터 최하이년징역의 언도(言渡)가잇섯다

◀無期懲役 京畿道水原郡長安面以下不詳 尹永配(三○)

◀四年懲役 黃海道平山郡以下不詳 吳達秀(三○)

◀三年懲役 宣川郡以下不詳 車宗路(二六)

◀二年懲役 碧潼郡松西面以下不詳 金龍華(三○) 碧潼郡碧北面以下不詳 申來享(二六) 同 金禮浩(二四) 義城郡以下不詳 金大奉(二八)

주범윤영배(尹永配)는 조선○○군의 비서과장에취임 조선내공작위원(朝鮮內工作委員)류광호(柳光浩)로부터 군자금요구를받고 량민으로부터 물자를강탈하야 송금을하는동 류광호가 체포된후 괴고는 조선내공작위원의 사명을띄고 의주군 청성진(義州郡淸城鎭)으로부터조선에침입하야가지고 포악한짓을 하다가체포된것이라한다

花砲도조코 管制도緩和

祝勝行事에當局指示

총독부에서 군(軍)당국과협의 한결과 남경(南京)함락 전승축하에 대한 각종회합에 필요한 때에는 소관경찰서장의 인정에 의하야 화포(花砲)사용과 등화제한을 완화하야도 지장이업다는것을 관계각방면에 통첩하엿다 그런데 경상남도(慶南)전라남도(全南)량도만은 진해만요새사령관(鎭海灣要塞司令官)과 도지사가 협의하야 시행하도록 되여잇는 곳이므로 그것은 특별히 취급하기로 하엿다

飛躍하는仁川港

滿洲支那에의大貿易港實現과同時에 優秀한漁港으로서의施設整備에注力

京畿產業調查委員會의"建議"

인천항(仁川港)은 조선중부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만주지나와의 통상무역상 가장긴밀한지위에잇서 대무역항으로서의 제반시설의완비는 대만지통상무역촉진에 긴급한것은 더말할것업거니와 대륙경제상의 군사적견지에서도 긴요한것임에 비추어 경기도에서는 현재착수중인 인천항개축공사계획을 오개년으로단축하야 급속히 그정비를하는동시에 광대한 보세공장(保稅工場)지대를 설치하야 만주지나의 풍부한 공업자원의 수입소화를 원활케하고 또는조선내의 만주지나수출품의 집산(集散)을 촉진식히기위하야 출하지(出荷地)로부터 인천에이르는 조선내의철도회사의 특정운임(特定運賃)을 맨들게하고 … 경기도산업조사위원회에서도 드디어이것을 총독부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엿다

이와동시에 인천항을 어항(漁港)으로서 완비하게시설을 더정비할 필요가잇다고하야 여기에대한 시설로서 어항용등 연료와 계통어회판매장 등 어업용품 … 시설을 완비하고 어항(漁港)으로서 발전하도록 … 설치하야 결함을 보충하려는 그밧게 주요어장부근의 도서에 대하야 간단한피난항을 세우고 … 조사할 계획도 세워 시기를 보아서 조사에 착수하기로되엿다 하여 서대문서에서는 …

興安丸坐礁로 連絡船配定一部變更

부산서 발열한서 떠나는 관부연락선 흥안환(興安丸)이좌초되어 부산부두에서 수리중이므로 래일(八日)에는 금강환(金剛丸)이 오는 발한다 그리고 … 부산발은 창경환(昌慶丸)이 … 떠나게되엿다

구두專門窃盜

서대문서에서는 시내 … 구두를 전문으로 절도한 … 을 잡아 취조중이다

本社電光뉴ー쓰 月二回는休報!

서울본사의 하나가된 회신(和信)옥상의 본사전광(電光)뉴ー쓰는 기보한바와가티 밤마다하기로되엇스나 한달에두번식은 회사의정휴일(定休日)과 림시휴업하는날에는 설비관계로 휴업하게되엇스니 독자여러분께서는 량해하시기바란다

中里簡易驛 明春까지解除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중리역(中里驛)은 종래에 림시운전(臨時運轉)의 간이역으로 저정되여 잇섯는데 십일부터 명년삼월말일까지 해제하여다한다

屋備女迷路

가시오……절부전주부 외전리 … 주소(金東…)(一七)는 … 에와서 … 에 길을잃고 … 보호중이다

性器強大靈藥 (商標登錄)

中國名藥 清導腎補丸

中國名藥清導腎補丸은中國的有名한蔘茸靈藥으로精力減退에 特效 …

東亞公司藥品部 振替京城天三三四四番

業務擴張特價大賣出

本店 京城南大門通 一丁目二三

工場 京城府黃金町 一丁目一九〇

各種四人轎及 步轎、冠服、諸具、元衫販賣 喪輿、葬儀用 … 各種 …

地方注文은代金引換

발안장도제조합

泰昌號 轎子店

藥種商講義錄

朝鮮藥律 日本無代進呈 京城西大門私書函一七番

毒劇藥改正 朝鮮藥業研究社

里ー이藥子

トウカス ツク、エ、ノ、ウ、エ、ニ、オ、ケ、

藥子店에잇고 5전입니다 멋은좋은향합니다

腫症仙藥 趙膏藥

종기에는…… 됴고약으로!!

크거나 적거나 모든종기에 신통하게 잘듯고 종기시초에 부치면 치여한창이빠르고 곳수저안습니다 덧나지아니하고

【效能】

○모든등창부스름 ○모든습종 ○유종 ○담종 ○오래된부스럼 ○담결니는데 ○낙상되야어혈진데 ○견비와요통증 ○모든부스럼에신효함

(藥價) 五錢、十錢、二十錢

全鮮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옵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

코물나고 코막히며

治し方

코물이나고……막히고……냄새 모르고……마르고……냄새 모르는사람 도시생긴다 …

鼻病解說 冊子進呈

申込所 東京市麥區新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新案 懷中 地圖日記

宋基柱氏 創案

昭和十三年度

朝鮮地圖道別

모던百科日記

定價金 五十錢 送料 三錢

日記의特色

最新式에모던懷中日記▲陽曆陰曆併用▲포로세스六色刷最新改正朝鮮各道別地圖二十四頁▲全鮮郡守人▲五千餘面洞里名人▲東亞時局地圖▲全鮮郡市人口表▲日本帝國地方別人口表▲改正郵便料金表▲메이달法比較表及其他全百十二頁優美本金字入▲全版高級포로세스特刷

新年進物用百部以上注文은御名金字入特別至急調製。團體及同業者限見本進呈送二十五錢

京城市內 特約販賣店

和信百貨店……鐘路

丁子屋百貨店……南大門通

三中井百貨店……本町

丸善株式會社……本町

日韓書房……本町

北內商店……本町

至誠堂……本町

以文堂書店……鐘路

永昌書館……鐘路

日の出商行……本町

京城鐘路二丁目九一·韓洋出版社發行 振替口座京城五八七〇番 代表電話光化門三〇九〇番

同じ使ふんだったら 藥用ポマードを 專賣特許の 藥用 丹頂ポマード

이왕쓰시면 약용포마ー도 … 의 약용 포마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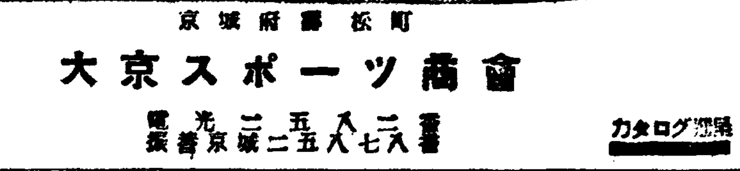
비듬、拔毛、가려움을 업새고 頭髮의色艶을 多分히 조케하는整髮料게다가산뜻한氣分!

井頂チック本舗 金鶴香水株式會社

大印府東城町二丁目交番前·電話光化門二七三〇番

石原耳鼻咽喉科醫院

入院隨意·夜間診料 院長醫學博士 石原貫一



本品ハスケートノ主要部分タル鋼鐵ヲ直接大ノ最大邦本上ヲ入ノ輸ヨリ精選鋼ビ及國産鍛結品來舶バナレノモシセ作製託委ニ社會ヲ其ノ用試御卒何リ方品逸キナ色遜ニ品何ト上ヲ使御マス

京城府壽松町

大京スポーツ商會

電話光化門二五八二番 振替京城二五八七八番

カタログ進呈

農地調整法成案

法文에缺陷不少 小作法的色彩稀薄

小作官權限擴充·小作關係調整이主眼

當局所期成果는疑問

「農地調整法案」은드되어 來議會에 提出되게 되엇는바 由來小作立法에關한調査研究는 明治十七年 農商務省에서 勸業諮問會를 開하고 農制整備의 方法으로 各種小作에關한 調査를하야 明治二十年 農務局에서 小作例規을 蒐集하얏스나 公表되지안코 中絶되고 다음에 大正九年 設立의 小作制度調査會 그他各種 調査機關의 研究를 經하야 大正十五年五月에 設置된小作調査會에서 겨우成案을 어더『小作法制定上規定할 事項에關한要綱』及『慣行永代小作整理要綱及小作法中永小作關係에關하야 規定할事項要綱』을 答申하고 農林省은 右에 基하야 小作法案을 立案하야 昭和二年三月農林司法兩大臣의 일홈으로써 內閣에 提出하얏스나 法制局의 審議를 經하게 되지못하얏다 그後昭和四年 濱口內閣은 前記小作法案에 多少修正을 加하야 第五十九議會에提出하야 一部修正可決되엇스나 貴族院에서 審議未了로되엿다 昨年의 二、二六事件을契機로하는 革新的機運의 釀成은 農業政策에잇서서도 重大한方向轉換을 하지안흘수업게하야 由崎前農相은 廣田內閣의 方針을 踏襲하야 第七十議會에『農地法案』을提出하엿스나 卒地의解散과政局의 急旋回로 이도한流産되엇다 이리하야 有馬現農相은 就任當初부터 土地問題의 解決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小作立法에依한 耕作者擁護의立場에서 新法案提出의 決意를굿게하고잇섯스나 今回 成案된『農地調整法案』은當初의意向에反하야 小作關係調整에關한 條項은 거이업고 結局 農地關係의 臨時施設法으로 來議會에提出하게되엇다

그런데 今番『農地調整法案』 立案의 根本眼目은

一、戰時體制下의 農業生産力의 維持

一、自作農維持創設策의强化

一、農地委員會及國家權力發動에依한 小作爭議의實質上의强制調停

等이다 따라 有馬農相이 就任當初 抱懷하고잇든 小作法的色彩는 稀薄하고 農地委員會、小作官、調停判事等의 權限擴充에依한 小作關係의 調整이 主眼으로되엇다 勿論法案中에는 農業『農地法案』에잇서서와가티小作地引渡로써 未登記의 農地賃貸借의 物權的對抗要件이되게하고 또小作契約의 不更新 解約及至契約更新의拒絶을禁止하기는하얏스나그他地主對小作人의權利義務에關한 規定 又는 合理的小作料의指示規定等은 一切 法文에 明記치안코 第五十九議會에 提出된『小作法案』과 如한强行法的으로 小作關係를 調整하려는 方針은 極力 이를 避하고 大體 農地에 關係잇는 爭議를 專 耕地의交換分合 移民等보다 農地委員會의 處理에 맛기어此間에 介在하는 小作官의 裁量權을 擴充하는 一方 農村自治의 精神에 立脚하야 漸進的으로 小作事情을 改善하려는것이 當局의 眼目이다 그러나 同法案의 革新的外貌下를 底流하는것은 小作法에 伴치안는 小作爭議의 豫防的禁止이고 法案中 이러타할 政策이라할것은 이미 實施중인 自作農創設維持策뿐이다 非常時局下의 小作爭議의 發生은 勿論 자미업는일이나 紛議의原因인 封建的小作慣行 乃至小作料의 根本的改革을 前提로하지안는 부질업는 爭議의 鎭壓 農民의 團結抑制는 도리혀 土地問題의 深刻化乃至潛行化에 拍車를 加하는 結果로되어當局이 所期하는바와는反對의 效果를 齎來할憂慮가잇다。그리고同法運用의 條件인 農地委員會의 構成은 勅令의 定하는바에 맛기어 그詳細는 알수업스나、現在의 農村實情으로보면 委員會는 實質上 地主對小作人의 勢力關係의 支配에 맛기어小作事情의 根本的 改善等을 바랄수도 업다「只今은 徹頭不徹底한 非難을甘受하겟다 그러나 農地調整法實施三年後의 成果를 보라」라고 農務當局이 揚言하파 如한 成果를 萬一取得할수잇다면 그는土地問題가 解決되기始作하얏기때문이 아니고 當該官吏가「衛平」한 觀念으로써 事件을 鎭壓한 結果라고볼것이다

法案要綱

前項과가티 農林省에서는 來第七十三議會에 農業保險法과 倂行하야『農地調整法案』을 提出하기로되어 目下企畫委員會에서 農務局案을 中心으로 審議하고 잇는바 六日 右原案의 要綱을 左와如히 發表하얏다

一、農地라는것은 耕作의 目的으로하는 土地及農業經營의用에供하는 採草地 그他의 土地를 말함

二、市町村 그他 命令으로써 定하는 團體는 農地의 所有者 又는 小作者로부터 支那事變에 因한 自己 又는 家族의 應召、一時勞力의不足 그他의 事由에 因하야 農地의 買收 又는 賃借를 申出한 境遇는 命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이를引受함을得할것

三、道府縣市町村 그他命令으로써 定하는 團體가 農村의 經濟更生을爲하야 自作農의 創設、維持 又는 農地의 賃付의 事業을 行하는境遇에잇서서 이에 要하는 土地를 取得하고 又는 使用할必要가잇는때는 命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行政官廳의 認可를 受하고 土地의 所有者 그他 이에關하야 權利를 有하는者에對하야 土地의讓渡、又는 使用收益의 權利의 設定 或은 讓渡에關한 協議를求함을得할것

前項에 規定하는者가 未墾地를 開發하야 同項의 事業을 行하려는 境遇에잇서 同項의 規定에依한 協議가 不調할때는 勅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開發에必要한 未墾地를 收用 又는使用함을得할것

四、第二、第三에 揭하는事業은 命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農地委員會의 會議를經하야 이를 行함을要할것

五、農地의 所有者가 農地를賣却하려는때는 命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市町村農地委員會에 그旨를 通知함을要함

六、政府가 助成하는 自作農創設維持의 事業에依하야 創設 又는 維持된 自作地의 所有者는 命令의 定하는境遇를除하는外 行政官廳의 認可를受치안코는 그自作地의 讓渡或은 賃付를하고 又는 이에對하야 物權을設定함을不得할것

前項의 自作地의 所有者는自作을 廢止하려는때는 行政官廳의 認可를 受함을要함

七、前項의 自作地는 그旨를 登記함을要할것

前項의 登記를 하지안흐면이로써 第三者에 對抗함을不得함

八、第二、或은 第三에 規定하는者가 그 事業을 爲하야하는 不動産의 權利의取得 又는 第三에 規定하는者의 取得等에 關하야서는 命令의定하는바에 依하야 登錄稅及 地方稅를 免除할것

九、小作契約은 그登記가업드라도 小作地의 引渡가잇슨때는 物權後 그小作地에 對하야 그 物權을 取得한 者에對하야 效力을 生할것

農地의 買主가 그農地가 小作地인것을 알지못하기때문에 賣買를한 目的을 達키不能한 境遇에잇서서는 買主는 賣買契約을 解除함을 得할것 그他의境遇에잇서서는 損害賠償을請求함을 得할것

前項의 規定은一年內에 ... 賣買契約의 當事者의 一方은相對方이 前項의 權利의 行使에因하야 生한 債務의 履行을提供하기까지는 自己의 債務의 履行을 拒絶함을得할것

十、小作地의 所有者 其他小作에 附하는者는 小作者에 信義에 反한 行爲가업는限 小作契約의解約 又는 更新을 拒絶함을不得할 但土地使用目的의變更 地主의 自作化 그他正當한 事由가잇는境遇는 此限에 不在함

十一、小作官은 公益上 必要잇다고 認할때는 小作調停法에 依한 調停의 申立을함을得할 小作調停의 爭議에對하야訴訟이 繫屬하는때는 受訴裁判所는 職權으로써 小作調停法에 付함을得할것

十二、小作調停法에 依한 調停을 爲하야 必要잇다고 認하는때는 裁判所는 職權으로써 小作官及調停委員의 意見을聽하고 調停前의 措置와 必要한 命令을함을得할것

十三、小作調停法에依한 調停이 되지안는境遇에잇서 裁判所는 相當하다고 認하는때는 職權으로써 小作官 及 調停委員의 意見을聽하고 當事者의 利益을 衡平히 考慮하야 小作條件의 變更、小作料의 減免 又는 小作地의 引渡、그他爭議解決上必要한 裁判을 할것

前項의 規定에依한 裁判은 借地借家調停法에 依한 裁判所에서 非訟事件手續法에 依하야 이를 할것

第一項의 規定에依한 裁判에 對하야서는 卽時 抗告를 할수잇슬것 그期間은 이를二週間으로할것

前項의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을 有할것

第一項의 規定에依한裁判이確定한때는 裁判上의 和解와 同一效力을 有할것

十四、農地의 相續關係 그他農地에關하야 爭議를 生한때는 當事者는 裁判所에 調停의 申立을함을得할것

前項의 調停은 小作調停法及第十一及第十三의 規定의 例에依할것

十五、自作農創設維持、小作關係의調整、農地의交換分合 그他 農地에關한事項을 處理하기爲하야 市町村에 市町村農地委員會를 道府縣에 道府縣農地委員會를 둘것

農地委員會에關한 規程은 勅令으로써 이를 定할것

銃後의國民經濟

❶ 橫瀨鮮銀理事放送

支那事變의 遂行을爲하야 我國의經濟組織을 變하야가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어 여러가지經濟關係의 法令이 發布되어 차차經濟의 方式이 變化되어가는中이다。

이것은 戰時에適當한도록國民經濟를 政府의힘으로 統制하야가는것이다 卽戰時經濟統制의 必要가생긴는까닭이다 나는 우선戰時經濟의 目的하는바는 무엇이가 平常時代로부터 戰時經濟로 移行하는데는 如何히할것인가 戰後에도 統制經濟는 必要하다는데 對하야 대강말하고자한다

×

一、戰時經濟의 目的하는바는 戰爭에必勝을 爲하야國民經濟를 總動員할것 다시말하면 平常時의經濟의方式을 一變함인데 어떠한 目的을爲하야 하는가하면

第一에는 戰爭에直接必要한 武器、彈藥 其他所謂軍需品을 多量으로生産하야 速히戰線으로 配布하는것에 絶對必要하다 前의『로-지칸』가 戰線되지아니하고 機關銃의 掃射가 停止되지아니하면 如何히 勇敢한 我軍의將兵도 進軍에 困難할뿐이다 世界大戰當時英國은 獨逸飛行機가 千이잇스면 우리는 五千으로써 對敵하겟다 一萬의『탕크』가敵에게잇스면 十萬의『탕크』로써 向하겟다하얏다。戰勝은 兵器의 優秀에딸어서 獲得할것이라는 方針으로하얏다고한다 支那事變의『뉴-스』를 들어도 飛行機、戰車、野砲、裝甲列車等 日本의 新鋭武器가如何히勝利에重大한 原因이되어잇는것을 알것이다 敵軍보다 優秀한武器를 數以上으로 多數히戰線에 送致하는것이 今日에는 極히必要하다

第二에는 國民各自의 生活을 安定케하기爲하야 日常生計를 保障하는데 必要한것 卽衣食住等의 必需品을 生産하야 이것을 公平하게 分配할것이다 戰爭에 國民에게 犧牲을 맛求하는것이나 公平하게 又는 最小限度로 分擔케할것이다 그리하야 國民의不滿의 憤을輕減하야 勝利를 獲得할때까지國民經濟를 維持케하야 갈이絶對必要하다

戰爭의方法은 다만武力에勝할뿐이아니라 敵國民의 生活을威脅하는것이 必要하다 戰爭은 國家의自衛를 爲하야 또는더욱其發展을爲하야 不得已하는것임으로 國家의 成員되는國民 個人個人의 生存이 困難하게되어서는 엇더武力에勝하야도戰爭의目的을達하얏다고는 못할것이다 歐洲大戰때에 獨逸은 國內의 食糧其他生活必需品이 缺乏되어 그苦痛에 苦하야라서革命運動이 勃發되어 그再戰으로 國家가崩壞함에至하랴하야서 休戰하지아니치못하게되얏든것이다

×

二、戰時經濟의 目的을 達하기爲하야는 所謂自由經濟로부터 統制經濟로 漸次移行하지아니하면안된다

國民의 經濟思想이 變하야가지아니하면안된다 明治以來의 經濟는 資本主義의 自由經濟이엇다 一言으로말하자면 取利主義이다。

勤勞努力한者가 財産을 蓄積하야社會의 地位를 占得한다 卽小의 勞力으로 最大의效果를擧하야 그蓄積한 財産은 自由로消費할수잇섯다 金錢萬能이엇다。어떠한 思想은 個人의 利己心을 根底로 發揮하는것이어國運國家를 萬能케하는 經濟는 最良의經濟를 示現하얏다 그러나近年에至하야 資本이나 事業이獨占的으로 엇던階級에 集中케되어 個人의 勤勞努力이 반드시成功한다고는할수업시되얏다 또奢侈品이라도 有利하면 製作한다 外國으로부터 輸入도한다 生活必需品이라도 有利하지안으면製作하지안는 弊端이 생기게되엿다 卽個人의 利益을 第一으로하야 活動하는것은 國家全體爲하야는 되지 안는일이잇다 그럼으로 一定한 計畫下에서 國民의生活이 安定되도록 經濟制度를變更치안으면 안되겟다고 考慮하게되얏다 여것이 卽統制經濟이다 戰時에잇서서는 前述한바와가티 武力에勝할것、國民의 生活을安定케할것에 二個目的을 爲하야 法律로써個人의活動을 統制하에가

●本社調査部編●

十一月十一日 ▲支那機南朝鮮襲擊 午後三時五十五分부터同七時까지京城市內燈火管制實施 ▲陸戰隊 浦東에上陸 豫中 松本兩部隊 蘇南渡河成功코南市攻擊 ▲上海에서 陸軍最初의 市街戰展開 ▲渡洋爆擊部隊南京市의內外空襲 ▲蔣介石、蘇州에 潛出하야抗戰陣容再建設 ▲我蘇州河渡航을 英兵、武力阻止。이에 英國側에 嚴重抗議 ▲蘇支密約失敗로 駐支大使更迭說 ▲英人記者一名遭難 他外二名도 重傷

十一月十二日 ▲開戰三個月만에 南翔、南市를完全克服 ▲空軍、威海衛上空에서 英國砲艦에 遭遇 ▲山西省에서澤州附近占領、大名縣城도 占據 ▲吳淞鎭占領코 崑山、大倉 常熟等도 猛爆 ▲上海共同租界工部局警察當局은 租界內의抗日機關에 解散命令 ▲政府는 九國國會議의再招請案에對한 回答文을駐日白大使에게手交

十一月十三日 ▲空軍、西安을空襲코 支那機六架擊碎 ▲…支那鎭占領 ▲杭州灣上陸部隊上海派遣軍間水陸連絡確保 ▲嘉定占領 ▲松江占領 ▲太倉、崑山方面의 支那軍 蘇州로 退却開始 ▲山西에서 沙河鎭、岸平占領 ▲支那側占領된 南市要所를 米人會社에 貸與햇다고發表 ▲日支紛爭調停에 伊首相出馬說 ▲九個國會議對日宣言案上程、伊代表이에 反對表明

十一月十四日 ▲山西에서 南鎭 ▲濟南北方要口鎭서 軍用船百餘를捕獲 ▲太倉一角占領 ▲乍浦東六山陣地攻擊 ▲二十九師의 本據地商河를占領

十一月十五日 崑山完全占領 ▲九國會議에서對日宣言案採擇 但伊太利는 反對投票

十一月十六日 ▲山東包頭陣完成 ▲禹城驛、晏城攻略코 黃河北岸齊河占領 ▲揚子江岸의 有數社 要塞福山占領 ▲嘉興의支那軍退却開始 ▲國民政府遷都決定(重慶)、大本營은 南京에存置

十一月十七日 ▲…占領 ▲…死守를 … ▲支那事… 十字軍에서 支那軍死傷者八十萬으로發表 ▲上海의 支那政府機關 漢口로 移轉키로決定 ▲國府行政院長孔祥熙就任 ▲大本營令公布

十一月十八日 ▲三面으로 包圍된 支那蘇州軍退却開始 ▲支那側大本營方針下에南京防衛를 增强 ▲我軍嘉興縣城完全占領 ▲新鋭上陸部隊猛射猛爆 ▲高橋、佐藤部隊常熟北方陣地突破、伊佐下技部部隊小唯亭南方線에 進出 ▲南京의 各國大使館도 移轉決定 ▲支那側排日宣傳中心을 廣東으로移轉

十一月十九日 ▲嘉十井部隊蘇州를完全占領 ▲滬杭甬鐵道를넘어 海岸地帶에 進出 ▲常熟占領 ▲支那側 黃河以北放棄는 戰略上撤退잇는退却이라고宣傳 ▲支那側南京防衛司令部設置코 司令官에 唐生智任命 ▲駐支伊大使와 의會談에서 松井司令官은 眞正한 敵은 支那背後의巨物이라고言明

十一月二十日 ▲海軍航空隊 蘇州와 蕪湖를 猛爆 ▲福山占領 ▲北支戰線에서 南和、平鄕、廣宗、臨洺城占領 ▲支那沿海封鎖는 長谷川長官指揮에 ▲原田少將上海工部局事務總長과 會見하고 租界內의赤化及抗日宣傳取締要求 ▲國府重慶遷都를 正式發表 ▲陸軍省에서 事變以來의 兩方損害概數發表 ▲大本營設置 ▲在上海岡本領事는 海關及郵政問題로上海市參事會長과會見

十一月二十一日 ▲我軍湖州占領 ▲周家口로 敵機數十臺擊破 ▲A、P電蘇聯製軍用五十臺를 支那側에引渡說報道

十一月二十二日 ▲無湖、無錫爆擊 ▲江陰砲臺 ▲湖州長興及周家口飛行場空爆 ▲UP通信 蘇機百六十台入支說報道 ▲末次大將 首相에게南京攻略은勿論、支那膺懲의目的達成을進言 ▲蒙疆聯合委員會代表開協定成立 ▲東京、京城에서 對英國民會議開催 ▲張家口에防共聯合政權誕生

十一月二十三日 ▲我空軍 上海方面 ▲…▲…에서敗走하는支那軍을猛擊 ▲南京人心大不安 ▲U P通信我軍、蔣介石에게 降服勸告狀傳達說報道

十一月二十四日 ▲金壇山占領 ▲吳興完全占領 ▲海軍航空隊南、京常州 江陰等空爆 ▲廣東과粤漢線要地도 爆擊 ▲南京에 戒嚴令布告實施 ▲支那側南京防衛陣急設 ▲九個國會議無期延期案採擇

十一月二十五日 ▲陸海空軍協力으로 常州 江陰 長興 宜興을爆擊 ▲黃河岸에對陣中이든 我軍遂行動開始 ▲百萬以上의 南京市民避難 ▲江陰에進擊中 ▲廣東을 猛爆 定山、鎭江、占據 ▲…我部隊 松井軍司令官 國府 屈치안코면 重慶까지도 追討한다고言明 ▲蔣介石 記者團에 南京死守決意表明

十一月二十六日 ▲長興占領、太湖岸各地도 占領 ▲洛陽을空襲코 敵機十數機粉碎 ▲岱部隊 泰安을爆擊

十一月二十七日 ▲十八里舖、新林占領 ▲… 二十六日重慶到着 ▲國府主席 ▲兩廣省自治政權 樹立決定 ▲…首相 西下車中에서 ▲…部隊 上海安占領 ▲近藤方面部隊의 敗走兵을…

十一月二十八日 ▲廣德、溧陽의 敵陣地도 猛爆 ▲常州進擊部隊 大劑官 ▲…▲國府 長江高龍山附近封鎖키로決定 ▲英國對支浦南行政圈守備發表 ▲南京衛戍司令外人避難을 勸告 ▲外務當局은 丹陽附近長江의 英船撤退要求

十一月二十九日 ▲常州城完全占領 ▲江陰砲臺陷落 ▲滬寧線宜興城完全占領 ▲支那側 江陰死守를 決意 ▲海關接受問題로英米兩國 外相에게 意見傳達

十一月三十日 ▲我軍廣德縣城完全占領코 安徽中央部로 進擊 ▲郎溪宣城南進 ▲…砲擊開始 ▲陸軍航空隊溧陽、郎溪、金壇、丹陽等各要地猛爆 ▲南京附近大火藥庫 三十日大爆發 ▲孫科漢口에到着하야 張群長과空軍事情協議 ▲浦口(杭州東南方)도爆破 ▲津浦線商山附近에서 支那軍用列車襲擊 ▲南京防備强化及大城壁架設、整備新架設코 兵舍品을奧地로輸送 ▲山本部隊鎭陽占領

十二月一日 ▲國府遷都問題로首腦部會議開始 ▲郎溪宣城深山으로各部隊進擊 ▲事變以來支那機損害四百十七臺 我軍은六十臺 ▲매일이、헤랄드紙、日本에 海關을接收하면外人稅務司總辭職說報道 ▲江陰城攻略 ▲江陰要塞完全占領 ▲丹陽城占領

十二月二日 ▲丹陽城占領 ▲金壇城占領 ▲廣東郊外의白雲山飛行場擊破 ▲海軍機南京上空에서 空中戰鬪開코 敵機十三機擊破 ▲로이텔及A、B通信駐支獨大使事變調停次南京向發說報道

十二月三日 ▲五里鋪、丁店鎭上臥龍占領 ▲北支에서淸澗縣占領 ▲海軍航空隊 南京爆擊 ▲首都部隊 彭德南方에서 支那大部隊擊滅 ▲陸軍精銳 上海市中行進中行、行進中 佛租界內에서 手榴彈一個投下 이事件을 契機로 今後日本軍 租界行進의 自由를確保(第一交涉) ▲毛澤東共產黨游擊隊編成着手 ▲莫斯科漢口間全路開始、漢口重慶間도 航路開設

十二月四日 ▲今日으로써 南京包圍體制完成 ▲丹陽附近의 水陽鎭占據 ▲江陰砲台下의 封鎖線突破 ▲海軍航空隊蘭州飛行場을襲擊코支那機十四臺擊碎 ▲三日의南京路行進中國旅館事件犯人은英人辯護士『노트란드』임이判明 ▲國府의發表로 獨大使調停出馬의事實確認

十二月五日 ▲句容陷落 ▲先鋒部隊南京까지四十粁의 距離 ▲豫備大本營 ▲漢口外交部에 蔣介石、獨大使와의會見에서 日本이 撤兵치안코면 和議絶對不可能이라고 答辯

皇軍慰問

森永學童圖畫作品 入選發表

東亞總動員特輯萬歲！ 빗나는皇軍의武運을爲하야 보내신어린이의熱實에感謝해서 紙上으로厚히御禮를올립니다

審査員
東京美術學校教授 和田三造先生
東京高等師範學校教授 板倉賢治先生
陸軍步兵大佐 今村嘉吉先生
海軍中佐 松島慶三先生

賞品
特選 森永カール箱子付一組
一等 特選メダル
一等 森永カール箱子付一組 九六名
二等 兒童文學叢書大書一組 四四八名
三等 ... シャープ鉛筆一組 七三六名
佳作 スケッチブック 一四四〇名
番外 記念エハガキ 一六、六〇〇名

紙面の都合上佳作以外は賞品發送を以て發表に換へます惡しからず御諒承願ひます

森永製菓株式會社

特選一等 九六名 [illegible]

一等 九六名 [illegible]

二等 四四八名 [illegible]

三等 七三六名 [illegible]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K153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世界의자랑

天下의補藥中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效信用天下第一！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입니다 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이잇습니다

二、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自信을 가지고 藥效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걱정말고 至今곳 百補丸을服用하시요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맞고效力깁고永久합니다)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效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虛弱으로부터始作！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의效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藥價
百補丸 一劑 特價 拾圓
婦人百補丸 一劑 特價 七圓

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地方論壇
大棠學院의 增級을促함

初等學校의 入學難이란것은 朝鮮에서만 볼수잇는 特殊한 現象이라할것이나 그中에서도 너무나 初等敎育機關이 零落한우리 大田社會에對하야 憂慮는一層深刻함을 보고잇다 此點에有志諸位에게 一言하고저 하는바는 衣食住가 人生生活의 要素가되는것과가티 敎育은 精神生活과 物質生活의 要素가 된다 個性發達과 生活向上에서 「배워야살겟다」란 이것을 社會的으로 要求하게되는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所謂 우리大田有志들은 너무나 잠자고잇는듯하다 大棠學院으로 論하면 十餘年前에 現在院長인 鄭壽永氏의힘으로 夜學이 始作되여 四年前에 비로소 學院이라는 일홈으로 大田社會에 나타나게되엿든것이 아니냐 同學院의 現狀을보면 方今 在學兒童이 三百七十名에 達하나 敎室이 狹窄하야 一敎室에 兒童六十名을 收容하면 適當한것을 七十名以上을收容하고잇서 先生들의 敎育上困難이莫大하니 兒童保健上과 其他로보아서 不美한結果를 볼것이事實이다 今春入學志願兒童數가約五百名이엿스나 學級不足으로 三百名밧게 入學을 許하지못하엿스니 하로밧비 學級을 增設하야 入學難의 緩和策을 講究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今春入學을못한 兒童은 배움의길을 일코 거리에서 彷徨하게될것을 有志諸位여 將來우리 大田社會를짊어지고 나갈 새일꾼은 배움에주려잇는 兒童들이 아니며 그들어린이를 指導할 責任者는 有志諸位가 아니면 누구인가 有志諸君은 奮起하라 貴여운 子女들을爲하야 指導할 責任을끗히늣기고 奮起하여서 하로속히 完成을 보힘이 有志諸位의 責任이아니고 무엇인가?

(大田支局一記者)

農地令을蹂躪하고 小作人들을飜弄
一斗落에五圓乃至卅五圓의權利金밧고
三年만되면地主가任意移動

鴨綠江上流에 / 無法한小作慣行

【新義州】 소화십년부터 시행되는 조선의 소작조정령(小作調停令)과 농지령(農地令)은 아직미비한점도만치만은 현재의법령하에서도그처지를리해치못하기때문에소작인이맛당히바들만한 리익과 주장할수잇는 권리가 오직지주에게 유린되는일이만타한다 수일전 압록강 상류연안에 출장하얏든 평북도당국자의 담에의하면 벽동군송서면(碧潼郡松西面)지방에서는 지주가 소작인에게서 매『한마지기』에 오원이상 삼십오원식이라는 무리한 소작권리금을밧되 삼년만에 한번식이를 또개신하야밧는다고한다 만일이를슬기어 내이지안는 소작인에게는 즉시소작권을해제하고 다른사람에게 또이와가튼방법으로 소작을식히되 소작인은 아모불평이업시 농지령에의하야 의례히 당할일로 생각한다고한다 소작권을 오원내지 삼십오원식에 판다는것도무리한일이려니와 삼년만지나면지주가 소작권을 마음대로 이동할수잇는것으로 알고잇다는것은 농지령의 의미를 잘못해석한것이다 즉 농지령에 삼년이라한것은 일단소작게약을 한이상에는 삼년이상을 계속하라는것이오 삼년후에는 지주가마음대로 소작권을 이동한다는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소작인은 농지령에 정한위반한 사고가 업는한에 사년이고 오년이고 소작권의게속을 주장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야 이와가튼무리한일을하되 아모분쟁도 일어나지안느냐하면 이는단지 소작인들이 무식한탓과 또세력을가진 지주에게 반감을사지안키우하야 이러한 무리한일이 아모분쟁도업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잇다고한다

豐凶에加減업시 小作料는正租로
打租制를廢止、全責任을作人에게轉嫁
搾取에들복겨는火田民

別項=평북압록강 상류연안 예심만명에 달하는 화전민은 보통농민에비하야 여러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이외에 지주에게 무리한착취를 당하고잇는 사실이라한얏다

즉 서북조선의 소작관행(小作慣行)은 소작료를타조(打租=생산품을 절반하는것)로하는것이보통인데 이화전에한하야는 모두정조(正租)로한다고한다 그리고 보통『정조』라는것은 타조에비하야 소작인에게 수입되는 율(率)이 만허야만 되는데 그리유는 타조는 생산물을 절반하는 것임으로 흉년에는 적고 풍년에는 만흠 으로 문제가 업스나 『정조』는 일정한소작료를작정하야노코 흉풍에 관게가 업시 소작인은 지주에게 재입을 부담하는것임으로(즉 다시말하면 위험률을 타조에잇서서는 지주와소작인이 절반하는것이나 정조에 잇서서는 위험률을 소작인만히 부담하는것임으로)『정조』는 타조보다 소작인의수입이 만토록하는것이 보통관례이다 그러나 이평북산간부일대의 화전민에 대한 정조는 대개타조보다도 소작인의 수입률이 적게되여다 여러지방에치롱균하야보면 대개 소작인은생산물에 대하야 사할을가지게되고 지주는 륙할을 차지하게되엿스며 그리고도 위험률은 소작인이 단독부담하게되얏다

이와가튼 무리한일은 현재시행되는 소작조정령에 의하야도 개정될수잇는것이나 소작인이어의률제출치못함으로 표면아무문쟁이업시 화전민의 고통만가중되여간다고한다

江臨線一部開通
完全開通은明春에

【江陵】 강릉 임계(臨溪)간 도로가 불통되어서 매일근만원에 달하는 화물이 정돈되어 양지에는밧는바 경제적타격이 막심하야 어선의 已족한 개통을 요구하는바자이엇는데 강릉토목관구(土木管區)와 청부업자들의 주야경행적노력에 주효하야 저난일일을 기하야 겨우개통을 보게되엿스므로 그간 적체되엿든 화물은 활발하게 여동되니잇다 그러나 완전한개통은 명년사월경에 이르러야되겟다고한다

順安市內電話
二十日부터開通

【順安】 평남평원군순안은 호수와인구가 나날이 증가되며 채금(採金)의왕성과 미곡의출산등으로 시가발전은 괄목할만하며거니와 생업방면에도 장족의발달을보게되엿스며 따라서 가로(街路)의정연과 그타시설들이착착정비되여 점점도시의 면목을 가추어가는데 오는이십일부터는 시내전화까지 개통되게되어 순안의각사업계에는 더욱활기를띄일것으로 일반시민들은 매우기뻐하는중이라한다

北支將士에餞物

【平壤】 눈바람에 살을찌르는북지전선에서 활동하는 황군에게 보내는 선명자조끼 삼천오백개는애국부인회 평남지부의 손으로발송되엿고 저원외원을 전중에서나마 기쁘게 마지리라정성으로 군사후원련맹에서 편호이백관과 청어얇 이백관을 현지에보내엿다

鯖魚豊獲
江口港近海에서

【盈德】 경북영덕군강구항(盈德郡江口港)에서는 신일월조순에고 어는 당일하로 [illegible] 배만미(萬尾)에달하며 가격으로매 미(萬尾)오려내지 [illegible] 이루고잇다한다

鎭南浦漁民宿願 漁港擴張決定
同時에製氷과冷藏庫도設置
道幹部와漁組間協議

【鎭南浦】 일년오십만원의 어획고(漁獲高)를내고잇는 어항진남포는 어항(漁港)이협착하여 수년래 진남포어업조합(漁業組合)이주체로 어항확장계획을 세우고 도당국에수십여차나 진정교섭하여든바 수일전평남도 내무과장과산업과장이 진남포에출장하여어업조합관계자들과 수차협의한결과 어항확장계획을 실현키로 구체안이성립되엿다고한다 이제그계획안을 듯건대 현재어업조합에 사용하고잇는 토지는 도유지(道有地)로 진남포부가관리하고잇스나 이것을무상(無償)으로 사용케하는동시에 현재기지상류에엿는 하천을부당국이매립하여 어업조합에 설비로매수하여 사용하기로 하엿다고하며 이기회를리용하여 다년숙망이든 제빙(製氷)과랭장고(冷藏庫)도약십오만원예산으로 설치하기로되엿다고한다

神院面事務所移轉
一部住民猛反對
公職者의辭職騷動

【居昌】 경남거창군신원면(居昌郡神院面)은 대정삼년에 삼가(三嘉)군이 합천(陜川)군으로 합군될때 상 륙개리(六個里)와 하삼개리(三個里)를 (神旨面)과 율원면(栗院面)이 합면되여 거창군으로 편입이되엿는데 그당시에는 현재본면주재소(駐在所)에 면사무소를 두엇다가 대정구년도에 현소재지인 양지리(陽地里)에 신축이전케되엿든바 소화삼년 신종조(愼宗朝)씨 면장당시부터 신지면이든 륙개리주민들은 면사무소가 일우(一隅)에 잇서 교통이불편함으로 면행정상이나 발전상 대단히 불리하다하야 적당한위치에 이전을요망하야 오든바 작년봄수해에 면사무소건물이 일부상한을 기회로 이전문제가 점차로활발하야 오든바 얼마전에 상륙개리주민들은 면사무소이전비 일천팔백원과 부지(敷地)일천이백여평을 준비하야두고 거대한 비용을드려 수선하기보다 지리상으로보아 본면중앙인 과정(瓜正)으로 이전지정을 군당국에하고 지난 십일월이십구일에 임시면협의원회를 개최하야 면사무소이전문제를 자문한결과 칠대삼으로이전하기로 결정이되엿다는데 하삼개리 오백여호주민들은 적시로 면협의원을 비롯하야 그타공직자가 총사직을 단행하는일방 최악의경우에는 군당국은물론이요 도(道)와 총독부까지진정할대책을 강구하며 면세(面稅)는 전연불납하라도하야 사무소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잇다한다

前科五犯의歐公
제버릇개못주어

【元山】 감옥사리 십년을하고세상에나와 일하여보니 매일삼사십전 품삯으로는 생활을하여갈수업고 눈아페 어른거리는것은 형무소의 붉은벽돌안만어 자기를부르는듯하여 또다시감옥행을지원한 초비상식의 전과오범의 절도자잇다

이렬선남자는 황해도신계군고면정봉리(新溪郡古面丁峰里)에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파거다서번동안이나 일년내지 오년의징역을해온 김창오(金昌鎬)라는 장년인데 그는 작년구월 경성형무소를 출옥한이래 각지로전전하다가 원산에와서 매일 이삼십전을바드며 열하야보앗스나 그것가지고는 살수업는세상에서 생활해가는것보담은 의식주에 불안이업는 감옥에드러가사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지난십일일 이십이일 오후열시이십분경 일부러 룻하인에 만흔돈 치를 재이후 덕원군현면 현동리 리규홍(李圭弘)방에 침입하려고 담벽을 넘으랴하다가원산서원에게 붓잡혀온것이라한다

廣梁幼園新築記念
音樂大會開催

【廣梁灣】 평남광량만(平南廣梁灣)유치원사 신축공사는 그간 재정난으로 만흔 곤란을당하엿스나 원장 김창룡(金昌龍)씨의 부단한 노력과 유지제씨의 도움을 바더지난달 상순에 준공되엿는바 이신축락성을 기념하기우하야 광량만감리교회(監理敎會)에서는 본보 광량만지국후원을바더 음악대회를 개최케되여 [illegible] 다수 참관을 바란다고한다

黃海號命名式
오는十八日擧行

【海州】 황해도(黃海道)일반도민들의 적성을다하야 맨드러노흔 애국제팔십팔호조선황해(愛國第八十八號朝鮮黃海)의 명명식(命名式)은 오는십팔일오후두시 해주공설운동장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慶南道內自作農
明年二百五十戶創定
道農政課서卅二萬坪購入豫定

【釜山】 경남도에서는 금년도에 설정할 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에 대하야 도내각군으로 부러 내신해온것을 기본삼아 방금여러가지로 조사중인데 농가호수는 토지등귀관계도 잇스나이백오십호를 설정할 방침으로 답(畓)약 이십사만여평 밧(田)약 칠만구천여평 합계 삼십이만여평을 구입할예정이라하며 그구입예정금액도 약십팔만오천여원에 달할터이라고한다

七人組詐欺賭博犯
大同署에就縛

【平壤】 대동군 부산면 신흥리(大同郡斧山面新興里) 김석화(金錫華)(三七)와 평원군 순안면신상리(平原郡順安面新上里) 김춘섭(金春涉)(三七)의 두명은 압서체포된다섯명과 공모하고 재작년부터 대규모의사기도박을계속하여 부내 기림리(箕林里) 림홍조(林鴻祚)에게서 현금사백여원을 사취한외에 평양 진남포에서 전후 십수회에 사천여원을 사취한것이 근일 판명되여 대동서에체포되엿다

元山도叺飢饉
對策에腐心中

【元山】 원산곡검관내에 가마니 약이십만매가 부족하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그중에서도 곡물의집산지 원산이일층심각하다고한다

정부매상미 쪽만가마니에대하야는 어번이처시험인만큼 편게 당국이 필사적으로 알선하야거의주당하얏스나 이정부매상미때문에 이출미(移出米)의 적하가마니는물론 중순하순적의 가마니는 현재상태로는 아직전도가 막연하야 무역상들은 장사를중지하고 이출게약을 파기하지아니치못할 위기에직면하야 원산의 대외적신용은 땅에떨어저장래의 무역상에대타격을 바들중대문제에 도달하얏스므로 당업자는물론 관게당국에서도 아주 이를 우려하고 가마니수급에대하야 각자도자적립장에서 그대책을 고구중인데 지금상태로는 가마니수급관계는 절박시된다고한다

中外鑛業 海州에進出
乾式製錬所設置
所要總敷地七十萬坪으로
會社側、黃海道當局과密議

【海州】 해주시가와 해주항(海州港)중간일대가 일대공업지대화한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해주는 첫재 공업용수(工業用水)의풍족、둘재 부지(敷地)가격의 저렴 셋재 서선유일의 부동항(不凍港)인 세가지조건이 전조선 어느곳보다도 유리한점에서 일본내지의 큰재벌들이 저마다압을 다토아 진출하는중 조선『세멘트』해주공장은 이미 조업을 개시하엿고 조선화약해주공장도 여미 공사에착수하여 명년여름전에는 그준공을 보게되엿는데 이번 중외광업(中外鑛業)에서 또한 건식제련소(乾式製錬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엿다

전기제련소 위치에 대하야는 저간 도당국과 회사사이에비밀히 절충을 거듭하여오든 결과 지난칠일 해주읍 사무소에 모히여 용지매수에관한 회의가 열리엿는데 그내용은 아직비밀에 부치여 외게에의 루설을끄리고 잇스나 신빙할만한 방면으로 탐지한바에의하면 금번용지총면적은 약칠십만평정도로 해면매립(埋立)약 사십오만평 (王神里村洞川口로 東交里現朝鮮洋灰埋立豫定線東方海上約五百米地點을通한 一直線內埋立豫定)을제한 이십오만평만은 읍(邑)의 알선으로 일반지주와 교섭하여 매수할예정이라한다 그매수지구는 현재『세멘트』회사매수지를넘편기선(基線)으로하고 동애리석당(東交里石塘)이남 읍에서해주항으로통하는 도로 동편일대가될것으로 불원중 매수예정지구내 지주와 밋구장(區長)을 읍사무소로 회집시켜 지가협정 (地價協定)에대한 타협회가 잇슬모양이라한다 동지대안에는 전기제련소이외에 기게공장(機械工場)및석탄액화공장(石炭液化工場)의설치설까지잇서 아모튼해주는 공업도시로 가장첨단적지위에 일울것은 의심할여지가업다한다

咸南의北魚檢查制
明年부터實施決定
每梱에檢查料八錢式徵收
咸南道서計畫樹立

【咸興】 동건명태(凍乾明太)업자들사이에 오래전부터 문제되야오든 검사제(檢查制)를 명년부터는 실시하기로 결정되엿다

이제이것을 실시하려고하는리유는 현재함남도에서 생산하고잇는 동건명태는 년약팔만태내지십만태의다수에 달하는데 아직도 그취인(取引)은 구태를버서나지못하야 판로(販路)도 퍽불안한가운데잇스며 성가도떠러질위기에잇다

례를들면 명태는 그성질상보통산적(山積)하게되는데 취인할때에는 그중팔십개식 빼여가지고 그것을견본으로 사고팔고하여 만일이것을사가다가도 그중에조치못한것이 잇스면 매매게약을 취소하는폐가 보통으로 업자들이밧는피해가 극히만타 그리고 이러한관계로 사는사람들이일일히 래담(來談)하야 현장에서 현물을검사하는례가 만흠으로 자연히 명태취인에잇서서는 할수업게 그판매범위가극히좁아진다

더욱 최근에는 검사제를 실시하고잇는 북해도(北海道)명태가 들어와 그판로를 빼앗기게될 위기에직면하고잇다

이리하야 그검사제는 목하의급무라고하는것인데 위선명년도에는 약칠만태가량 검사할예정으로한편(梱)에대하야 검사료팔전가량식예산하면 수수료만 열만칠천원가량된다고한다

동건명태는 함남수산의 왕좌로서 이것의검사제 실시이후의영향은 꼬여업자들의 중대한리해문제될으키게될것으로 실시결과가자못주목된다

馬養島에造船所
資本金五十萬圓으로
北靑劉載龍氏等六名이計畫
朝鮮서最初로五十噸級을製作

【北靑】 신포마양도(馬養島)에오십만원의자본으로 조선서처음인는 조선공장(造船工場)을 설치하려는게획 북청읍(北靑邑)에잇는 유지유재룡(劉載龍)씨등여섯명은 마양도서안의해면 매립을하야오는데 이매립허가후에는 다음과가튼 대사업을 목표로하고잇다

마양도서안 석정리(石井里)마서리(馬西里)의둘고비는 그전면에 그만흘리쫌고잇는 적은섬이잇서 큰섬과적은섬사이는 완연 호수와가티되여잇다

어면적은 약삼십만평가량되는데 그중삼만평가량은 퍽천해로서 이것은매립하야 조선공장소위『떠크』기타 종업원주택 서가지를 만들터이며 이떠크는『시립』식으로하야 심해(深海)부에 조선할 배를진수(進水)할 게획이라고한다

이전에선과 본섬사이는 그간격이 불과륙십미돌가량으로 오십톤급의 선박은 자유로출입할수잇스며 완전히방파의 역할을 할수잇고 또그호수내에는 심해천해의 사이가완전히 절변파가티구별되얏스므로 조선공장으로는 들도업는 천연적조흔 조건을 가지고잇스며 이러한 조흔 조건에 착목하야 이사업을 계획하게 된것이라고한다 조선공장의 자본금은 오십만원으로 위선 이십오만원으로 공장건설공사 그리고 해면매립은 별로 십이만오천원의 공사비를 예산하고잇는데 소요된공사 오백여명 종업원은 약일천여명을 넘울것으로 오십톤급내외의 조선을 할게획이라고한다 이사업에 대하야서는 해면의 리용가치로 보든지 또는 지원발전상으로보아서 도당국、신포읍에서 크게 기대를하고잇스며 매립인가는연래로 될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인가만나리면 곳착수하야 명년중에는공장건설이완성되게될것이라고한다는데 조선에서 처음잇는 조선공장으로 특히수산의비약적발전을 하고잇는 함남도에서 종래발동기선은 모두일본내지에서 건조하야오는 이때에 더욱이사업의 중대성에 큰기대를모으고잇다고한다

山城鎭產米增
十五萬石을突破

【山城鎭】 봉길선(奉吉線)중앙의 중요지대인 산성진(山城鎭)은주위옥야천리에 매년조선인농가가 증가하야 수전개발(水田開發)은약진적으로 진전되여 산출한벼는 전부서내로 중개하야반입되는데 현미환산십오만석을 돌파할예상이라고한다 그런데 대부분은정내 주요 십삼정미업가(精米業家)에서 공정하게매입하며남어지는 봉천(奉天)방면으로 반출되는데 축년증산되여 산성진의장래는 미산지(米產地)로유망하다고한다

奇特한妓生

【海州】 해주사립광명보통학교(海州私立光明普通學校)는 그전신 수양강습소(修養講習所)시대부터 일반무산아동교육에 만흔공헌이 잇서온학교로 항상재정에 곤란을늣기여오든중 금년봄 정식으로 사년제(四年制)보통학교로 승격된이래 한층더재정의 곤란을당하여 심지어 동기용 석탄구입에까지 적지안흔 지장이잇다함을듯고 수일전자진하여 본보지국을통하여 일금이십이원팔전을동교에 기부한가륵한 여성이잇다 그는 해주읍서영정(海州邑西榮町)일백삼십삼번지에 거주하는오명옥(吳明玉)(二七)이라는 현재해주권번(海州券番)에 적을둔기생의몸인만큼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第一敎會의美擧

【新義州】 칠일 신의주제일교회(第一敎會)에서는 신자들로부터 일백삼십원을모아 신의주서에서경영하는 육영료(育英寮)에 기부를하얏다한다

馬山線昌原"고개" 隧道着工在邇
工事費總額六十餘萬圓으로
基本調査도近近完了

【馬山】 오래동안 현안으로 나려오든마산선(馬山線)마산、삼랑진(三浪津)간의 운송력의"스피드"회를 목표로한 철도선로의 대개수는 방금공사중인데 덕산、유림정(德山、楡林亭)간의 공사를 금년말로서끗을막고 다음으로유 예정인대 이와함께 종전부터열차운행에 크나큰지장을 주어연선(沿線)지방민으로하여금 크게 갈망하든창원、덕산(昌原、德山)간 고개(峠)를 턴넬로 만들게다는 협안이 그동안철도당국에서 유력화하야 그동안 기초조사를마치고 근근굴착(掘鑿)공사에 착수하기로 정식결정이 되여명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할터인데이 턴넬공사는 기리약이키로 공사비로만육십여만원을 요할것인데 이것이실현되면 종래로 크게불편을 늣기든마산선운행에 시간단축 렬차의스피ー드회에 운수능률의 증진이일대변혁을 가저올것으로 일반의기대가 비상히 크다한다

泰川에도市內電話

【平壤】 평양체신분장국에서는관내 [illegible] 되는외에 평북태천(平北泰川)등에는 이삼일중에 시내전화가개통하게되엿다

前科者의義兄弟
自轉車五十臺를竊取
시골에出張販賣타가被捉

【平壤】 전과 삼범씩의 리력을가진의형제가 공모하고 자전거를 전문절취하야 술과 계집의유흥자금으로 대이다가 대동서(大同署)에 붓들려 네번재의감옥행(監獄行)을하게된 두청년이잇다

본적을 평양부내대찰리 (大察里)육십칠번지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절도전과삼범 김리택(金利澤)(三二)과부내기림리 (箕林里)백번지전과 삼범 김중빈(金重彬)(三二)량인이 사일 새자전거를 끌고 부내기림리 각자전거상회로다니며 팔려는것을 대동 서원이 수상이보고 부서로 인치취조한결과 량인은 공모하고 지난시월이십칠일 오후한시 평양역전(平壤驛前)에서 새자전거한대를 절취하여 중빈이가 평북운산군읍(雲山郡邑)에 출장 김찬화(金贊化)에게 십오원에 판것을 비롯하야 잡히기까지단시일에 오십여대를 (금액 오백여원)절취하여 지방에 출장판매하야 술과계집에 대량비한는것으로 자백하엿다는데 아직여죄가 만흠으로 계속엄중 취조중이라한다

愛國機忠南號
近日中에獻納

【大田】 북지사변발생이후 충남도(忠南道)민의 애국열은 불꼿파가티 발로되여 지난팔일까지 애국기 충남호(愛國機忠南號)건조비에 십칠만삼천원을 돌파하엿슴으로 정지사(鄭知事)는 금월중으로 상경하야 헌납수속을 하리라는바 느저도 명년일월중에는 충남호가 대전천공(大田天空)에 날으리라고한다

潘来陽氏特志로
陽村學堂落成

【陰城】 충북음성군원남면양촌리에사는 청년사업가 반재양(潘来陽)(三二)씨는 동리무산아동의교육기관인 양촌학당(陽村學堂)교사가 건축한지 십여년을 경과하

地方人事

▲神代正人氏(鎭南浦加德公立普通學校長) 新任人事次本社鎭南浦支局來訪

▲金尾會氏(森林主事補) 鳳頭森林保護區轉勤人事次本社鳳頭支局來訪

▲尹昇洙氏(山林主事補) 惠山森林保護區轉勤人事次同上

▲市原重人氏(森林主事) 楊坪森林保護區榮轉人事次 同上

▲金衿春氏(興生堂醫院長)開業人事次本社龍城分局來訪

▲金鍾斗氏(前安州稅務署長)昌城稅務署長轉任人事次本社安州支局來訪

元山市計
道路網、建築線等 明年中에確定
計畫事業은來明年에

【元山】 도시계획령의 실시를 알두고 원산부에서는 계획선로에 대한 지형조사를 개시、벌서 기점(起點)치량에착수하야 진행중인데 이조사는 십이년도내로 끗마치고 다시명년도에는 계획간선및 도로망、건축선(建築線)등을 결정하며 명후년도에는 지정최량구획정리、사업착수의 준비를 개시할터이란데 원산부 토목과에서는 저금칠십년도 예산에 서가지 계획에 편한조사비로 삼만삼천원을 계상중이다

이리하야대망하든 대원산건설의큰간이되는 계획사업은 래명년부터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것이라한다

愛國機咸南號
獻納手續完了

【咸興】 함남도의기금은 루보한바와가티 예정액십만원을 배이상초과하야중읍으로 전번모집역원회에서 결의한바와가티

十五萬圓 陸軍戰鬪機二臺
四萬二千圓 海軍艦上戰鬪機一臺
五千六百圓 海軍留式機銃二挺

을 헌납키로되야 칠일그수속을 필하얏다

馬山府災害道路
改修工事着手

【馬山】 작년대재해로인하야 마산부내도로는 전부피해를 입어 시가지의 도로가 면목이여지가업저든동 부당국에서 이를개수하고저총독부에 재해복구비의 국고보조를 신청하엿든바 근일정식인가가 나렷슴으로 총예산록천육백원을드려 부내의 재해도로를 전부개수하야 도로의면랑을회와함께 교통상 불편을일소하리라한다

第一學校學藝會

【長淵】 장연군송천해서 제일학

二千餘圓모아 私設學堂設立
上沙峴里民熱誠

【新高山】 함남안변군위익면상사현리(咸南安邊郡衛益面上沙峴里)에는 아동기관이업서서 문맹을면

厭世自殺憂慮잇다고 七名을保護檢束
咸興署留置場에大量珍客

【咸興】 함흥경찰서 류치장에는 현재오십삼명의 류치인이 잇서 필경은 면벽파세게 될모양인데 이중에는 염세자살할 우려가잇서 보호류치한다는 이상한류치인이 엄연일곱명이나잇다 이들은 모두정신에 다소이상이잇서 사실 염세자살할 우려가 잇다고하는데 좁더러 잘들어보려고 애쓰다가법망에걸리고잇는 다른죄수들과때조하야 묘한"코ー러스"를보여고잇다

長篇小說
濁流
蔡萬植 作 / 鄭玄雄 畫 【60】

千雨萬雨(7)

초봉이는 아까 아침에 나갈때만해도 넘치게 명랑했었다。오늘은 저녁때부터 새주인한테 가개를 아주 넹겨주고 내일하루 쉬고나면 모레는 밤차로 서울로 간다고 아이가 본시 진중하니까 사뭇 새일거리지는 아니햇서도 혼자 속으로 조하서 못견듸어하는 눈치는완연했섯다。

그는 그새도 늘 어머니만미드니 어쨋든지 아버지가 못가게 막지못하두룩 가르마터주어야한다고 모녀가 마주 안기만하면 뒤를 놀흘점 신신 당부를했고 오늘아침에 나갈적에도 모친을 가만히 부어크로 불러내어 그말을하면서 모친이 염려말라고 해주니까 그저 입이가리고 돌아서서 나갓섯다。

그랫는데 지금 저녁에는 갑작이 신색시 말이아니게 풀려가지고 맥이업시 들어오니까、유씨는 처음에는 정말 몸이아퍼서 그러는가하고 애가 쓰여서 그러케 성화를한것이다。

그러나 차차 보니 제말대로 역시 몸이 아픈것은아니고、무엇을 걱정하는것가튼 낙담한것가튼 그런 기색이엇섯다。

그러면 갈데든 서울을 못가게되어서 그런것이 나아닌가 물론 집안에일은 제가 그새벌서 알엇슬리치가업고、그러타면 달리 무슨 곡절이 생긴것이구나 대체 어째서 그랫는고 유씨는 이러케 두루 생각을 해보느라고 잠잠히 손꾸의 바늘만 놀리고잇다。

초봉이도 잠잠하고 한동안 말이업시 안젓다가 문득

『어머니、나 서울 못가게되엇다우』

하는게 마치 성가신 남의말을 겨우 전달하는듯하다。

유씨는 속으로는 혼자、그저 그런것 갓드라니 하고서

『응응? 왜?』

짐짓 놀래여 뭇는다。그는집짓 놀래는체햇지 속으로는 그것 일어 십상 잘되엿다고 마음이 뇌엿다。

유씨는 방금 오늘아침까지도 딸더러 부친이 막는것은 가루마툴테니 염려말라고 장담을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해와섯다。

그러든것을 그날 하루가 다 못가서 가튼 그입을가지고 이애 너 서울 못간다 이말을하기는 아무리 모녀지간이요 또갑작이 조흔 혼처가 나선때문이라지만 그래도 낫 간지러운노릇이엇섯다。

그러니 계제에 제가먼점 서울로 가지못하게 되엿다고하니까 유씨는 이런 다행할데가 어데잇스랴 시펏다。

초봉이는 제가 한말이고 모친이 한말이고 다 이저버린드시 우둑허니 안저잇다가 역시 내키지안케 대답을한다。

『아저씨가 오지말래요』

『아저씨? 제호말이지?』

『내에』

『왜? 어째서?』

무러도 초봉이는 고개를 숙여고 대답이 업다。

『아ー니 글세…』

유씨는 사뭇 서슬을내어 서구려든다。

『제가 자청해서 가자구하구는 언제는 오지말라다니 무슨곡의 변덕이야! 그런 시럽단… 일이 어데잇다드냐?』

물론 이면는 지금 인간대사 혼인을 하게된고로 그러치안혀도 일을 파의시켜야할판이엇고 그러니 절로 파의가된것이 다행이기도하고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지 도무지 경우가 글른짓이다。

일시건 제엽으로 가자고가자고해서 다 말짜듯이 짜노코는 인세 비스갬이 오지말라고한다니 그래서 남의집 어린자식을 저러케 실명이 떠려저 얼굴이 죽을상이 되게하다니……。

요행 보내지안키로 조금전에 작정을 해기에망정이지 그러지아니햇다면 유씨는 담바 두주먹울 불끈쥐고 쪼차가서 속이라도 시원하게 시비를 가리려들을 그의 승벽이다。

사실 그는 당장에 초봉이가 가엽슨깐으로는 그대로 부루루 달려가서 제호의 턱미테다 주먹을 디리대고 자 무슨일로그랫습나? 그런경우가 어데잇습나? 그만두소 그까진놈의 서울 안보내도 조습네 보다란드시 버젓한 실랑감을골라서 혼인을 하겟습네 이러케 코구멍이 빼언하두룩 몰아세어주고십기도햇다。

『글세 우리를 만만히 보구서 그러는게아니냐?…대체 어째서 가자구했다가 인제는 오지말란다드냐? 답답하다。속이나 좀 알자쿠나?』

유씨는 참고 그만두지 그럴열이 아니라고 속을 돌린뒤에 초봉이더러 이러케 물어본다。

초봉이는 꼿꼿흔 대답을 아니하고잇다가

『나두 몰으겟서요…그냥 오지말라구 그러니까』

하면서 종시 말하기를 새린다。

그는 아까 저녁때그일을 모친한테고 남한테고 제나치·오히려 뜨거워 말하기조차 창피햇다。